조선대학교 소식

Vol. 254 2020. 봄호

당신에게 따스한 봄빛이 닿기를

봄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잠깐의 외출조차 버겁습니다.
여기, 당신을 위한 봄빛을 가득 담았습니다.

조선대학교는 1946년 9월에 7만 20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가
교육으로 민족을 부흥시키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설립한 국내 최초의 민립대학입니다.
74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대학교가 창학 100주년을 향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들/어/가/며

"역사와 함께한 조선, 미래와 함께할 조선_WITH CHOSUN"

조선대학교의 소식지가 새로워졌습니다.

격월간지에서 계간지로 바뀌면서 기획 콘텐츠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소식지의 엄선된 기획 콘텐츠를 통해

눈길을 끄는 학생 성과와 연구 성과를 분기별로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2020학년도 봄호의 주제는 #함께_with chosun 입니다.

조선대학교는 해방 직후 7만 2천여 국민들이

교육으로 민족을 부흥시키고자 #함께 설립한 국내 최초의 민립대학입니다.

조선대학교는 74년의 역사 동안 지역사회와 구성원, 전국 25만여 명의 동문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 간의 찬란하고 유구했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창학(創學) 100주년, 지역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조선대학교로 거듭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설립부터 현재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여정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CONTENTS

success with chosun
학생 성공과 함께하는 조선대학교

14 주경야독으로 당당히 국가시험 수석 합격
– 언어치료학과 김보림 대학원생

18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 2회 연속 수상
– 법학과 김대우 학생

20 서미화 박사의 시각장애 극복 스토리

24 팔순에 대학 입학한 만학도 CEO 동광건설 황금추 회장

innovation with chosun
기술혁신과 함께하는 조선대학교

30 인공위성 개발팀 2곳!
우주·항공 연구의 거점, 조선대학교

36 코로나19 퇴치, 우리가 맡는다!
링크플러스사업단, 강력 살균수 생산 '친환경 전해수 생성장치' 특허

culture with chosun
문화와 함께하는 조선대학교

42 중앙도서관 소식

44 김보현 미술관 '꽃봄오리' 展

48 박물관 유물 갤러리

CU칼럼

54 언론인 칼럼

56 학생 칼럼

58 백년대계의 밑거름_발전기금 소식

62 조선대학교 소식

68 조선대학교병원 소식

71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소식

2020. vol. 254

발행인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발행월** 2020. 4.
발행처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062-230-6490)
기획·편집 김화선 **사진** 서일환

창학 100년을 앞둔
조선대학교 구성원 슬로건 공모전

조선대학교가 지난 2월부터 조선대학교/대학원 학생·교수·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슬로건 공모전에 총 218명이 참가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창학 100년을 앞두고 대학 비전과 경영전략이 담긴 슬로건을 공모함으로써
구성원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슬로건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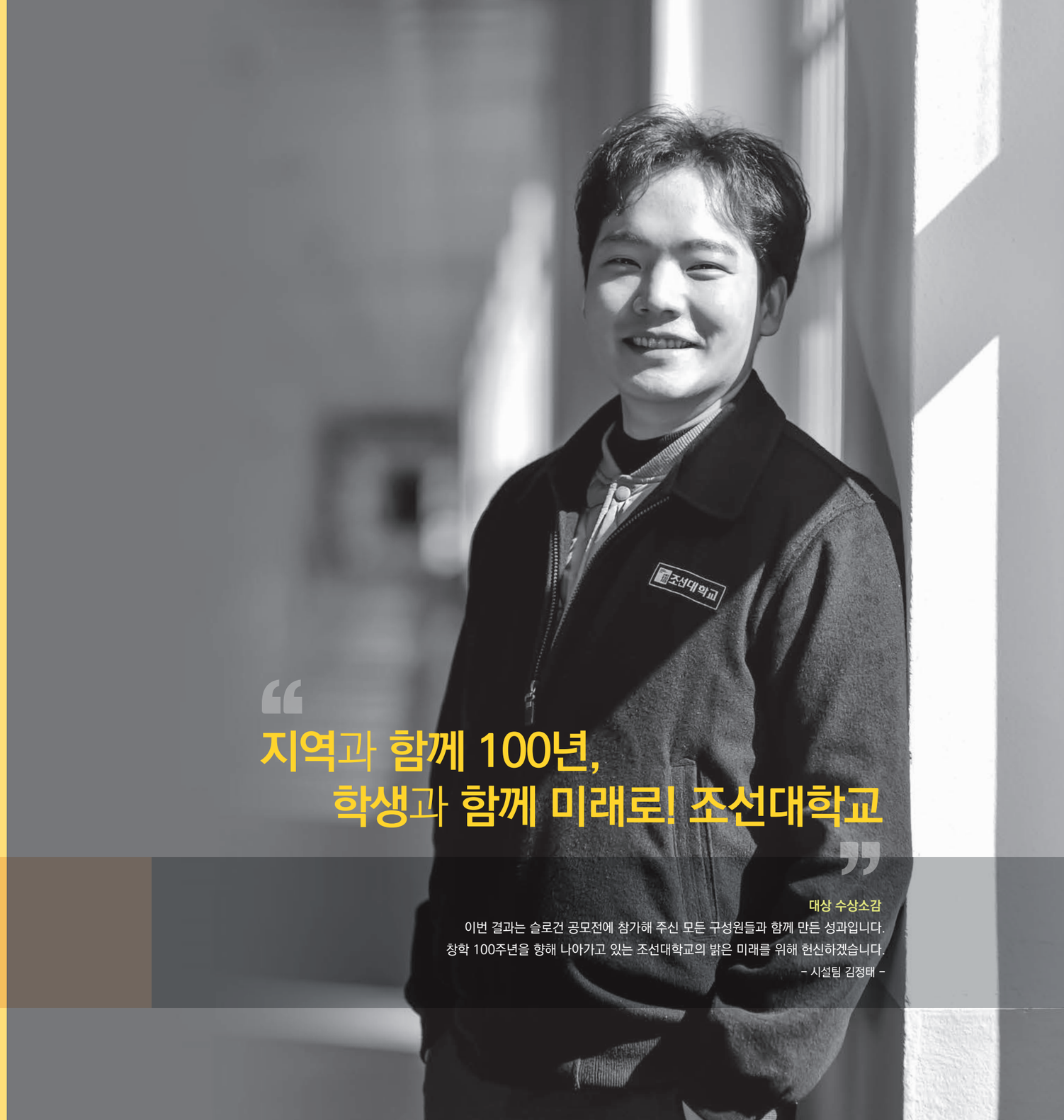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작은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조선대학교”**(총무관리처 시설팀 김정태)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에는 **“100년의 역사가 빚은 그대, 그대가 비출 새로운 시대”**(물리교육과 강진실)가 선정됐습니다.
“역사와 함께 한 조선, 미래와 함께 할 조선- We With Chosun”(간호학과 안유은)과
“비추어라 내일을! 창조하라 미래를! 나아가라 세계로!”(교육학과 송성한)가 우수상 슬로건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사평

이대용 슬로건 심사위원장(조선대학교 부총장)
“대학의 정체성 확립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슬로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준연 심사위원(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우리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이 슬로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조선대학교 학생으로서 조선대학교의 가치와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조선대학교”

대상 수상소감
이번 결과는 슬로건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창학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 시설팀 김정태 –

100년의 역사가 빚은 그대
그대가 비출 새로운 시대

CHOSUN UNIVERSITY

success with chosun

학생 성공과 함께하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는 학생의 밝은 미래를 지원합니다.

SUCCESS WITH CHOSUN

"2019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수석"

김보림 대학원생, 주경야독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언어치료학과가 지난 2019년 12월 7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1급과 2급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2급 수석합격의 주인공은 김영연 동문이며, 1급 수석합격자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보림 학생이다. 수도권 유명 대학교 학생들을 제치고 거머쥔 수석의 영광이기에 더욱 값지게 여겨진다.
2007년 개설된 언어치료학과는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서 매년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1회 졸업생 전원이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두 합격했다. 조선대 언어치료학과의 누적 합격률은 98.7%에 이른다.
김보림 학생을 만나 수석을 차지한 공부 비결과 과정을 들어봤다.

“학창 시절 스터디 그룹 수업시간 학습 자료 큰 도움”

국가시험 수석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언어재활사 1급 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하게 된 공부 비결을 들을 수 있을까요?

2011년에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해서 2학년 때 언어치료학과로 전과했습니다. 2015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에 입학해 2018년 2월 졸업했으며,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의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난독증 등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시험 공부 당시 업무를 마친 후에 학부시절 수업시간에 받은 학습자료를 꾸준히 복습했어요. 교수님들이 열심히 지도해 주셨기에 그것만 열심히 공부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일을 마치고 공부를 해야 해서 몸이 항상 피곤하고 공부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서 놀라웠고, 힘들었던 만큼 기쁨도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언어치료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전과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자율전공학부에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데, 전문성이 두드러진 직업을 찾아보다가 언어치료학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전공에 대한 기초학문을 듣고 온 상태가 아니어서 2학년 초에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들의 세심한 가르침과 친구들과의 스터디그룹이 전공공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적응도 금방 할 수 있었어요.

'학령기 언어장애'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흥미로운 연구 분야인 것 같습니다.

석사 논문이 '초등 2, 4, 6학년 일반 아동의 설명 담화 요약하기 능력: 비교/대조와 원인/결과를 중심으로'입니다. 논문이 CSD라는 학술지에도 등재가 됐어요. 지도교수님이신 윤효진 교수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학령기에 나타나는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현재도 글을 읽고 쓰는 것을 힘들어 하는 학령기 어린이, 청소년들을 치료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점이 가장 보람되는지요?

학부모님이 "아이가 거리에서 간판도 읽기 힘들어 했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간판을 읽고 일상생활이 훨씬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뻤고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치료과정에서 그룹스터디를 하는데, 또래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해요.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요?

목표였던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했으니, 보다 심도 있는 학술성과를 내고 싶어요. 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더 키워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김보림 대학원생이 아이들의 언어학습을 지도하는 모습

“한 번도 어려운 걸 두 번씩이나!”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 대회’ 2회 연속 수상

법학과 김대우 학생

한 번의 수상도 어렵다는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 대회’에서 2회 연속 수상을 거머쥔 조선대학교 학생이 있어 화제다.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대우 학생은 제25회와 제26회 ‘키움증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 대회’에 출전하여 모두 수상권(1~3위) 안에 들었다. 김대우 학생은 제25회 대회에서 수익률 100%를 달성해 2위에 올랐고, 제26회 대회에선 그보다 더 높은 254%의 수익률을 달성해 3위에 선정됐다. ‘주식투자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자부하며 금융업계 꿈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모의투자 대회

대다수 증권사들은 일정기간 모의투자 대회를 개최한다. 대학생 모의투자 대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사이버머니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률로 순위를 매겨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인턴십, 해외탐방 등 부상이 제공되고, 금융회사 채용 지원 시 특전을 주는 회사도 있다. 모의투자 대회는 자본 없이 누구라도 투자 연습을 진행하기 좋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사이버머니를 이용한다는 점 외에는 실제 투자와 운영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

주식투자에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단순한 계기인데요. 몇 년 전에 ‘작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 내용이 충격적일 만큼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영화를 계속 돌려보면서 영화 내용에 매료된 저는 그때부터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고, 실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식 모의투자 대회에 2번이나 참여하셨는데 이유는?

첫 대회에 참여한 계기는 진로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필요했고, 2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회에 두 번이나 참가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수상 성과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생 모의투자 대회의 수상은 운’이라는 시선이 있어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두 번째 대회에서도 수상함으로써 제 수상 실적이 운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25회 대회에선 수익률 100%를, 26회 대회에선 254%를 달성했습니다. 현실 주식투자였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한 것인데, 주식투자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나 비결이 있다면요?

모의투자 대회는 철저히 수익률 경쟁입니다. 대회 기간 중 매일 시장이 마감되면 오후 6시 30분에 누적 수익률이 중계실에 업데이트됩니다. 저는 당시 무조건 수상권(3위 안)을 바라보고 대회에 임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매우 컸습니다. 대부분 모의투자 대회 참가자들은 가상의 돈을 쓰기 때문에 위험 투자에도 망설임이 없지만, 저는 실전 투자보다 더 조심스럽게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참가 중 난관에 부딪힌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이번 대회(26회) 초반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목표 순위권인 3위 안으로 생각보다 빨리 진입했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저보다 더 큰 수익률을 낸 분이 3위권 안으로 빠르게 진입해서 확실하게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2위와 3위를 놓고 경쟁해야 했는데, 곧 2위 자리도 다른 참가자가 차지했습니다. 그때부터 초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매 심리가 조급해져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곧 평정심을 찾아서 3위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금융시장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식에 흥미가 있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특별히 없습니다. 현재 취업을 위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라 주식 공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주식시장을 살펴보고 시장이 종료된 후 적당한 종목을 몇 가지 뽑아서 그 종목들을 제가 가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시장 지수와 코스피, 코스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셨나요?

금융계열 취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맞게 취업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감사합니다.”

서미화 박사의 시각장애 극복 스토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이자 전 목포시의원인 서미화씨가
조선대학교에서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선대학교는 그의 학습을 돕기 위해 장애 학생 지원자를 배치하는 등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사과정 입학 허용한 곳, 조선대학교가 유일

중2, 망막색소변색증 발병 '집중 시력' 상실

서미화씨는 중학교 2학년 때 망막색소변색증으로 집중 시력을 잃었다. 서씨는 책도 볼 수 없고, 노트 필기도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어, 어릴 때부터 숱한 고난을 겪어 왔다.
그는 "중·고등학교 일반 학교를 다녔던 당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지원도 학교에서 받을 수 없었다. 비장애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 정규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회상했다.
대학입시 시험을 치르던 날, 서씨는 장애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시험 답안지 때문에 입시가 좌절됐고, 학업을 포기했다.

교통사고 계기로 공부 의지 다잡고 사회복지 전공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잃은 그를 다시 일으킨 계기는 바로 '교통사고'였다.
서씨는 30대에 교통사고로 팔,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어 약 6개월간 대·소변도 혼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꼼짝없이 누워있게 됐다. 그때 그동안 잘 안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신체 기능이 모두 건강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시각장애에 갇혀 불평만 하고 살아온 날들을 깊이 반성하고, 36세의 나이에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목포시의원으로 전남지역 장애 여성 인권 운동 앞장

용기를 얻은 서씨는 전남지역에서 자신과 같은 장애여성들과 함께 장애여성 인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전남에서 최초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개소했으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서씨는 여성이라는 점과 장애로 인해 이중차별을 겪고 성폭력으로 학대받는 여성장애인 인권을 대변하고 구제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그는 활발한 인권운동으로 지난 2010년 목포시 제9대 시의원(장애인 직능대표)에 당선됐다.

장애 학생 지원자 배치 등 다각적인 도움

조선대학교 박사과정 입학·다각적 지원

시의원이 된 그는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박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여러 대학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시각장애 학생을 접해본 경험이 없어 입학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행정복지학부)는 서씨의 박사과정 입학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는 그가 원활한 이동 및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장애 학생 지원자를 배치했다.
서씨는 "대학의 도움을 받아 박사과정을 밟으며 전문성을 길렀고, 덕분에 의정활동 중 장애인 인권보장조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등 10여 가지가 넘는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과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 서씨는 지역의원 중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각종 표창을 수상했고, 지난 2012년에는 미국 국무부의 초청을 받아 국제지도자과정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인고 끝에 박사학위 취득… "교수님 배려 큰 역할"

그의 역경은 끝나지 않았다. 박사논문 설계 및 연구 과정에서 일반 자료를 시각장애인이 습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조사·분석해야 했기에,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3~4배의 시간과 노력이 더 걸렸다.
그러나 지도교수를 포함한 전공 교수들의 배려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마침내 지난 2020년 2월 25일 대학원 졸업식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다. 서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지도교수 김용섭, 공동지도교수 박희서)이다.
지도교수인 김용섭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서미화씨가 시각장애 당사자인 전문인력으로 장애인 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제도나 정책을 적극 개선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팔순에 대학 입학한 만학도 CEO, 동광건설(주) 황금추 회장

조선대학교 황금추관의 설립자, 동광건설㈜ 황금추 회장이 조선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80세의 나이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2020년 만 86세의 나이에 만학도전형에 도전해 당당히 합격했다.
그의 전공은 법학이다.
황 회장은 '20학번' 신입생 가운데 단연 최고령이지만
학구열만큼은 동기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조선대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 법학학사 과정에 도전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 토목이나 경영이 아닌 법학을 택하신 건지요?

나이가 들수록 도덕과 법리를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될지를 계산한 것은 아니고, 상식과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80대지만 공부하고 싶은 의지만큼은 젊은이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새내기 신입생으로서의 각오가 있나요? 희망하는 학점은요?

80점 이상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소 높을 수 있지만,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이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절차탁마(切磋琢磨)입니다. '옥돌을 자르고 썰고 쪼고 갈듯 학문과 덕행을 갈고 닦는다'는 뜻이죠.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고시원인 황금추관 앞에도 절차탁마를 새겨 넣은 비석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문에 정진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뤘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가 절차탁마의 마음으로 공부에 정진할 때가 왔습니다. 주어진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생활 신조나 경영 철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이나 종교 등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 이것이 신조라면 신조겠네요. 저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를 먼저 다집니다. 그에 맞는 능력을 키워 단계별로 실행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경영 철학은 분명합니다. △인화단결 △품질관리 △성실시공입니다. 직원끼리는 화합하고 우리 회사가 시공하는 모든 것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동광'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 회사를 일구어 왔습니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에 유독 관심이 많아 지속적으로 환원을 실천해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사회환원 활동 중 장학금을 기부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수많은 수난을 겪어 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인재양성'입니다. 국토의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조선대학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고시원 황금추관을 건설했고, 매년 법과대학이 성적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선발한 장학생에게 장학금(용곡 황금추 장학금 9명)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황금추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변호사 시험 합격 등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직 진출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보람이 큽니다.

베트남 등 해외 문화교류 사업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베트남 양국 간 경제사회 발전과 유대협력 강화를 기치로 지난 2014년 4월 한국-베트남 문화교류회를 창립했고,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베트남 문화교류회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임원단 방한 후원과 베트남 민족 간 친선협회 연합회장 방한 행사 주최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학도로서, 기업인으로서 꿈은?

법을 공부하며 세상의 이치를 더욱 깊게 이해하여 사회적 약자들,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여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이나 종교 등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 이것이 신조라면 신조겠네요.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를 먼저 다집니다.
그에 맞는 능력을 키워 단계별로 실행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innovation with chosun

기술혁신과 함께하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실사구시형 창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WITH CHOSUN

인공위성 개발팀 2곳!

우주·항공 연구의 거점, **조선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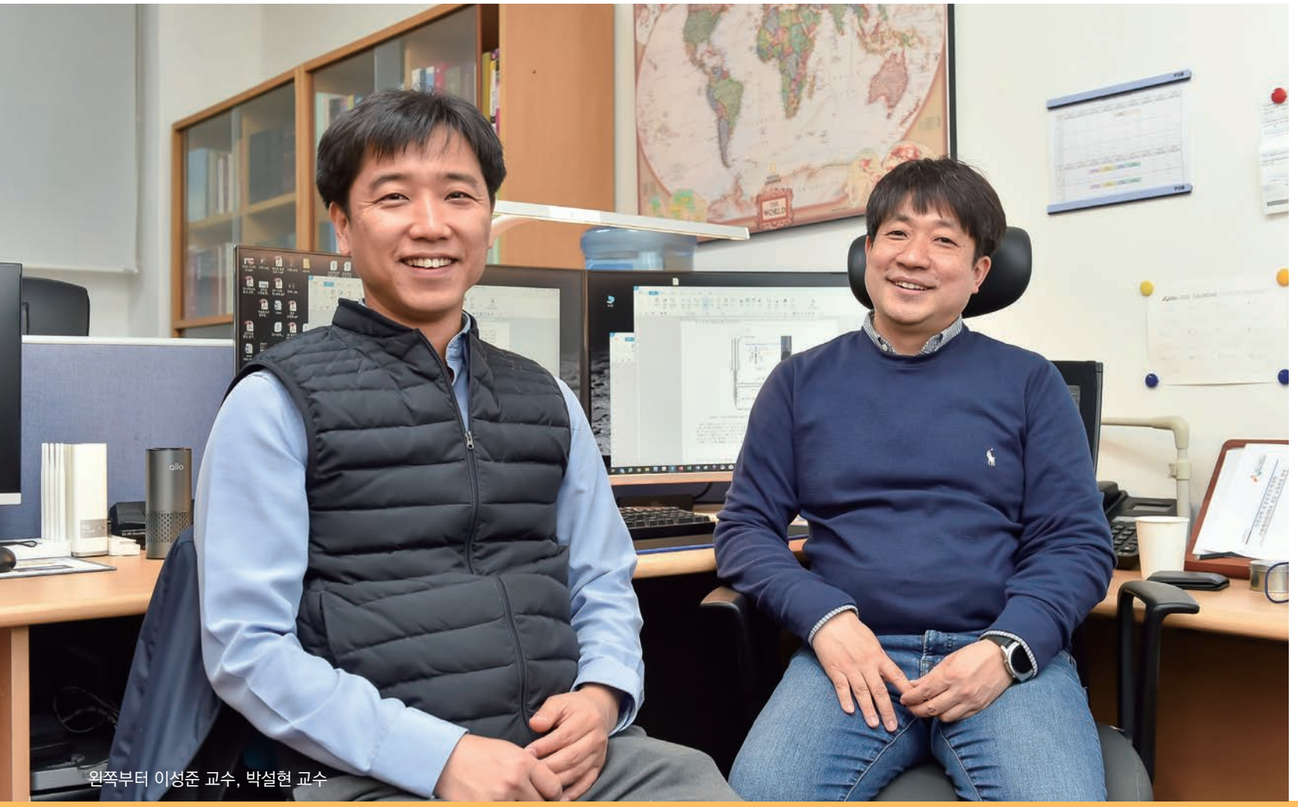
조선대학교가 우주항공분야 거점 대학으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지난 2017년 조선대학교 박설현·이성준 교수의 'KMSL'(Korea Micro Gravity Science Lab)팀이 '2017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개발팀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개발한 인공위성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6~7월 발사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호남권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인공위성(큐브위성)을 개발한 조선대학교 오현웅 교수팀이 새로운 인공위성 개발에 돌입했다.
오현웅 교수 연구팀(STEP Cube Lab-II)은 지난해 '2019년 큐브위성경연대회'에서 지역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팀으로 선발됐다. 특히 이번 위성은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첫 번째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큐브위성이란?

큐브위성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이고 질량은 1.33kg 이하인 정육면체 모양의 '초소형 위성'이다. 표준화된 유닛 여러 개를 연결해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과학적, 산업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연구용 위성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우주분야 우수 인재양성과 위성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설현·이성준 교수
‘KMSL’팀

조선대 KMSL(Korea Micro Gravity Science Lab)팀은 지난 ‘2017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개발팀으로 선정됐다. KMSL팀은 조선대학교 지능형 열 시스템 설계 실험실(Intelligent Thermal System Design Laboratory)과 전력 전자 및 에너지 변환 실험실(Power Electronics & Energy Conversion Laboratory), 연세대학교 분자 세포 생물학 실험실(Molecular Cell Biology Laboratory)이 협력하여 위성을 개발하는 연합팀이다. KMSL팀은 조선대학교의 김진혁 대학원생을 대표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의 박설현 교수와 이성준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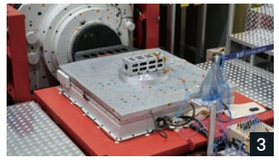
왼쪽부터 이성준 교수, 박설현 교수

연소 실험과 생물 육성 실험 과학 임무를 수행

KMSL 큐브위성은 우주 환경(Microgravity, Vacuum, etc.)에서 연소 실험과 생물 육성 실험과 같은 과학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임무는 유인 우주선의 선실환경에서 발생한 화염의 전파와 소멸 현상 분석이다. 마이크로 중력 환경에서의 고체 연료 점화 특성, 대류 열 전달이 없는 환경에서의 화염전파 특성(전파속도, 화염 크기, 화염 강도), 불활성기체의 화염 소화 능력 분석이다.

두 번째 과학 임무는 마이크로 중력 환경에서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는 ‘곰벌레’(물곰·Tardigrade)의 생존율 및 생활사를 관찰하는 것이다. 곰벌레는 크기 50㎛~1.7mm의 무척추동물로 행동이 느린 완보(緩步) 동물에 속하며 영하 273도나 영상 151도의 환경,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생물로 알려져 있다. 위성은 마이크로 중력 환경에서 유전형질에 따른 곰벌레의 생존율을 분석하고 우주 환경이 곰벌레의 생활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국산 제품 채택·다학제 연구로 기대효과 ‘UP’

KMSL 팀은 해외제품에 의존성이 높은 위성 시스템 버스 일부를 국산제품으로 채택하고 산업체와 협력해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KMSL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에 개발되었으며, 국산기술에 대한 성능을 우주 환경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 연구 인력(다학제 연구)의 참여와 대학 간의 상호 연구 협력을 통해 기존의 인공위성 연구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까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1. FM 환경시험
2. FM 조립 완료 사진
3. Z축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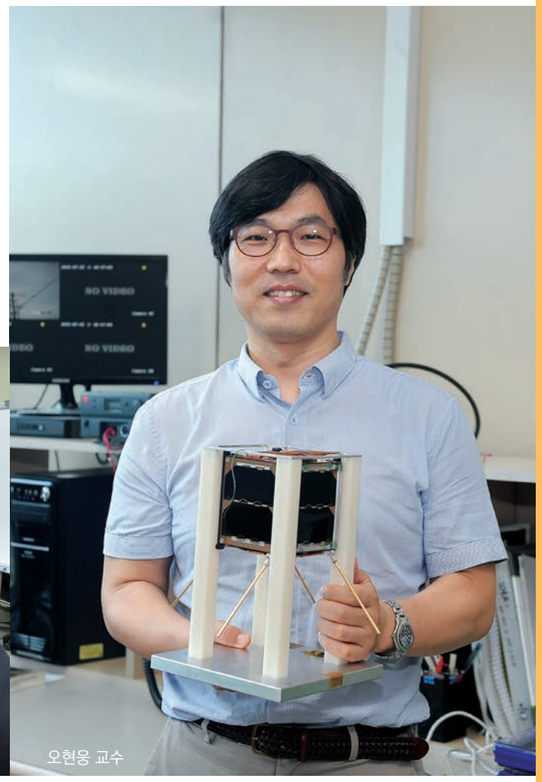
오현웅 교수
‘STEP Cube Lab-II’팀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오현웅 교수 연구팀은 ‘2019년 큐브위성경연대회’의 ‘기술검증형’ 목적 분야에 개발팀으로 최종 선정됐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지역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조선대학교 오현웅 교수 팀은 조선대학교 연구원과 솔탑, 한화시스템 등 국내 8개 업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오현웅 교수팀에서 개발될 큐브위성의 이름은 지난 2017년 개발한 1kg 큐브위성 ‘STEP Cube Lab’에 이은 ‘STEP Cube Lab-II’이다.

큐브위성 개발팀 ‘STEP Cube Lab-II’ 연구원들

국내 최초 백두산 천지 폭발 징후 관측

‘STEP Cube Lab-II’는 10kg의 6U급 큐브위성으로 개발된다. 이번 대회 선정으로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비 7억 원을 지원받는다. 개발된 큐브위성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통해 발사될 예정이다. 이 위성은 백두산 천지 폭발 징후 관측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 지역 및 도심 열섬현상 등도 관측할 계획이다.


오현웅 교수

이전 모델 장점 살리고 취약점 보완해 완성도 높여

오현웅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3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도 최종 3개 개발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호남권 대학 최초로 인공위성(큐브위성) ‘STEP Cube Lab’을 개발했다.

완성된 ‘STEP Cube Lab’은 2018년 1월 12일 인도 Sriharikota 발사장에서 인도 PSLV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다. ‘STEP Cube Lab’은 로켓에서 분리(고도: 513.337km)에 성공, 궤도 진입 후 조선대학교 내의 지상국(우주기술융합연구실)에서 2018년 1월 12일 밤 8시 30분 경 위성과의 최초 교신에 성공했으며, 밤 9시 52분 56초에 선명한 신호를 잡았다. 하지만 ‘STEP Cube Lab’은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겨 임무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STEP Cube Lab’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 한층 발전된 위성 ‘STEP Cube Lab-II’를 개발한다. ‘STEP Cube Lab’는 1개의 유닛(U)이었지만, ‘STEP Cube Lab-II’는 6개의 유닛으로 이뤄졌다. 유닛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또한 위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복구하는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퇴치, 우리가 맡는다!

LINC+사업단, 강력 살균 '친환경 전해수 생성장치' 특허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및 각종 유해균을 친환경적으로 예방·퇴치할 수 있는 '친환경 전해수(電解水) 생성장치'를 개발해 지역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식품의 청결과 신선도를 위해 모든 식품가공 분야 공장에 의무적으로 전해수 생성장치를 설치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해수 생성장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살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LINC+사업단이 개발한 '친환경 전해수 생성장치'의 관심도 덩달아 늘고 있다.

조선대학교 '친환경 전해수 생성장치' 연구 및 개발의 주역인 황민 LINC+사업단 연구교수를 만났다.

전해수

일반적인 물에 전기적인 힘을 가하고 소금을 첨가해서 얻어지는 물. 살균·소독제, 세정제, 세제, 왁스, 농약 등의 화학물질 대용으로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을 예방하는 곳에도 쓰인다.

황민 조선대학교 LINC+ 사업단 연구교수

전해수 생성장치는 어떤 원리인가요?

전해수 생성장치는 물(H^2O)의 전기분해(H^+, OH^-)와 소금(NaCl) 또는 소금물(Na^+, Cl^-)을 활용, 수소이온의 농도(pH)를 조정하여 산성수와 알칼리수를 각각 분리, 생성하는 방식으로 살균수(水)와 세정수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산성수는 살균하고 알칼리수는 세정하는 역할을 하죠.

개발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태어난 고향이 염전이 제일 많은 신안 비금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현대식 염전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죠. 오래 전부터 깨끗한 소금을 생산하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요즘에는 천일염 소비가 줄어들어서 천일염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그러던 중 일본에서 온 한 수(水)처리 기업체 대표에게 천일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기업체가 바로 일본에서 소금 유통과 함께 전해수 생성장치를 판매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천일염을 더 사서 일본에서 유통을 해 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부터 전해수 생성장치가 무엇인지 무척 알고 싶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식품산업에서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장치가 됐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본격적으로 전해수 생성장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년 간 연구 끝에 기존의 제품보다 더욱 발전되고 사용이 편리한 전해수 생성장치의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LINC+사업단에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추진했으며, 전기전자파안전인증(KC) 등의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도 함께 하셨다고요?

시제품을 적용할 분야에 대해 기획-운영 부분을 LINC+사업단의 저와 박현규 연구교수님이 진행했고, 기술분야(시스템 구성, 센서/프로그래밍 기술 등)에서는 김봉석 교수님과 신종호 교수님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며, 디자인 분야에서는 손장완 교수님이 힘써 주셨습니다. 특허가 완료됨과 동시에 곧바로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 2월 26일 조선대 LINC+사업단-동구청 친환경 전해수 생성장치 업무협약

전해수 생성장치

기존 제품보다 강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사용상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염수와 소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했는데요. 기존 제품에 적용된 시스템은 소금물 공급 시 염도가 일정하게 조절되지 않은 채로 전해수가 생성되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장치의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투입된 소금물의 농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해 정확하고 일정하게 수소이온 농도(pH)의 항상성을 유지(출력 안정화)하는 것이 성능이 좋은 전해수 생성장치라고 할 수 있죠. LINC+사업단이 개발한 최신 시스템은 유입되는 물의 양과 소금물의 농도가 조금 다르더라도 항상 일정한 수소이온농도(pH)의 전해수를 생성하도록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밖에 장치에 유입되는 물을 더 깨끗한 물로 변화시키는 기술 등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을 개선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도 적용됐다는데, 무엇인가요?

저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연구자입니다. 전해수 생성장치에서 임베디드(embedded) 프로그래밍,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개발을 지원했어요. 다양한 유압센서 및 유량센서 등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는 전해수 생성장치에서 프로그래밍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는 데 기본이 되는 기술이죠.

조선대학교의 기술개발로 이른바 '역수출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올림픽 유치로 전해수 생성장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전해수 생성장치의 단가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수출 제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선대가 기술이전한 기업체가 상당수의 수출 판매 협약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과의 업무협약은 무슨 내용인가요?

LINC+사업단이 지난 2월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동구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구내식당 및 보건소, 복지관에 전해수 생성장치를 설치했고, 현재 원활히 사용중입니다. 대학의 창의자산(지식재산권)을 지역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동체와의 상생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연구자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성과나 과제가 있다면요?

앞으로도 수(水)처리 기술, 즉 물을 자원화하는 기술과 시스템 개발 분야를 더욱 깊게 연구하여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culture with chosun

문화와 함께하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만들어 갑니다.

WITH CHOSUN

중앙도서관 소식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출입 게이트에 손소독제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각 층 자료실을 폐가제로 운영하여 대출, 반납만 1층 데스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반납된 모든 도서는 도서 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하고 있다. 또 중앙도서관은 출입문 3곳 중 정문만 개방하고 외부인들이 출입 가능한 ACE 라운지를 폐쇄하는 등 외부이용자를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휴관 중인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3월 31일 자료실(도서 대출)만 개방한다. 중앙도서관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일반 열람실이 개방될 경우 한 줄 좌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도서관 코로나19 대응 과정

1. 출입 게이트 열화상 카메라 설치
2. 외부인 출입가능한 ACE 라운지 폐쇄 조치
3. 일반열람실 게이트 코로나 대비 배너 설치
4. 도서관 로비 코로나 관련 주의 사항 배너 설치(3곳) 및 손 소독제 비치
5. 도서관 폐가제 운영 및 대출, 반납도서 자체 소독 실시
6. 일반열람실 좌석 한 줄 좌석제 실시(예정)

중앙도서관 2020학년도 학생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 운영

명저로 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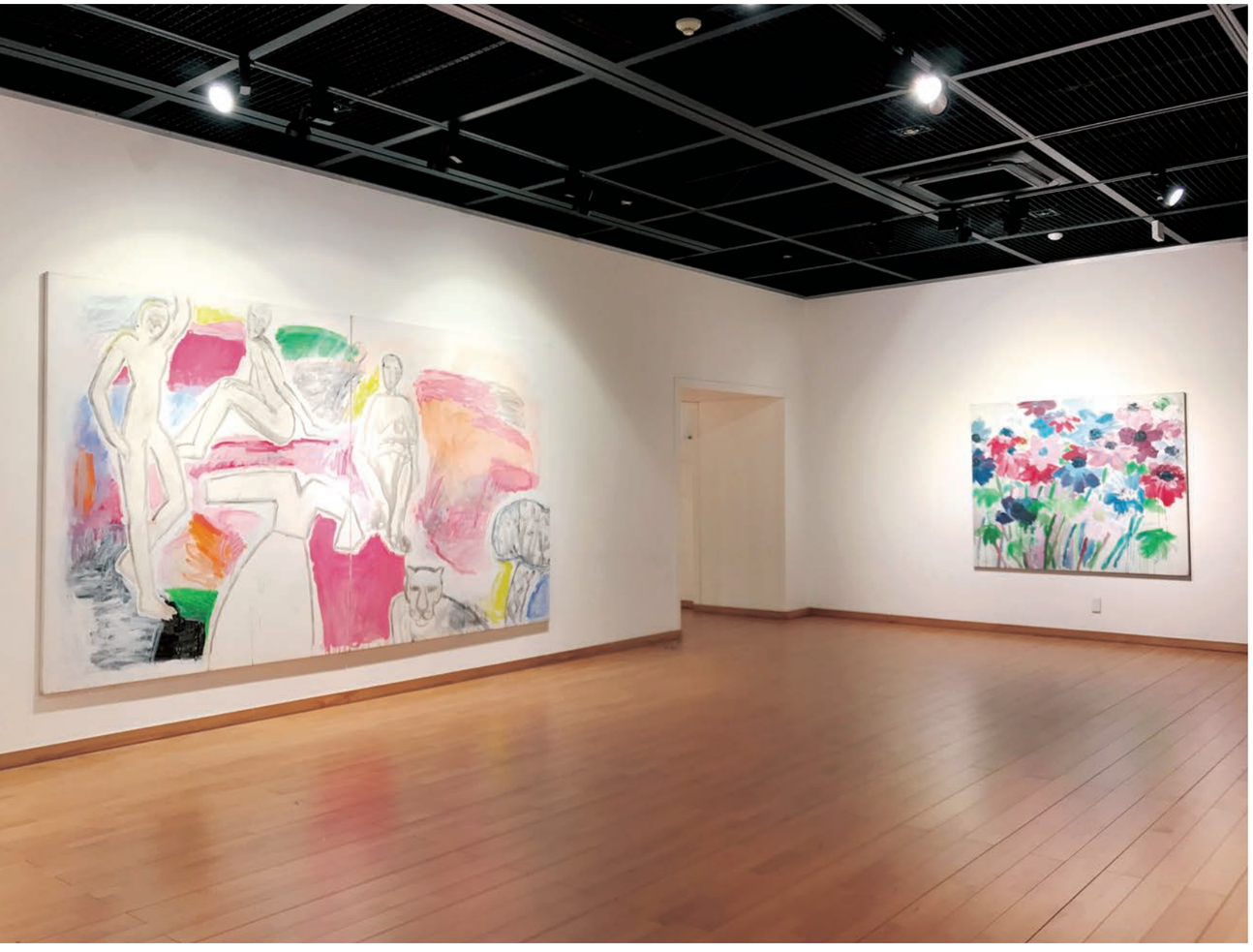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언어능력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하여 명저 독서와 글쓰기를 연계한 '명저로 통하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저·권장·추천 300선」에 해당하는 도서를 대출하여 읽고 감상문을 작성한 후 기초교육대학 글쓰기센터의 첨삭을 받아 CU+ 학생통합지원시스템의 문화마일리지 명저읽기에 업로드하면 참가자 전원에게 명저감상문 인증 마일리지(3M)를 제공하고, 선착순 20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한다. 목록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rary.chosun.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명저·권장·추천 300선」은 '명저읽기' 수업 교재로 선정되고 있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라이브러리 아카데미

학습 및 과제 해결에 중앙도서관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이 3-Step으로 구성되어 제공된다. 1 Step '웰컴 라이브러리(Welcome Library)' 에서는 도서관시설과 이용 규정, 책 찾기 등의 기본 내용을, 2 Step '서포트 포 리포트(Support for Report)' 에서는 수업 및 과제 관련 자료의 검색법, 리포트 작성과 참고문헌 작성법과 관련한 내용을, 3 Step 'e편한 e자료'에서는 학부생이 알면 유용한 국내 DB를 전문강사의 교육으로 제공한다. 중앙도서관은 각 단계별 교육을 이수할 때마다 스탬프를 부여하고, 3-Step(3회 3시간 이상)을 모두 이수시 라이브러리 아카데미 수료증과 문화상품권 3만 원을 수여한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rary.chosun.ac.kr) 참고 _ ☎062-230-7506

김보현 미술관



소품연작(KIMPO-W118), 38x38cm, 목판에 아크릴, 1994

‘꽃봄오리’, 봄을 전해 줘!

김보현&실비아울드 미술관
봄맞이 소장품 기획전 **‘꽃봄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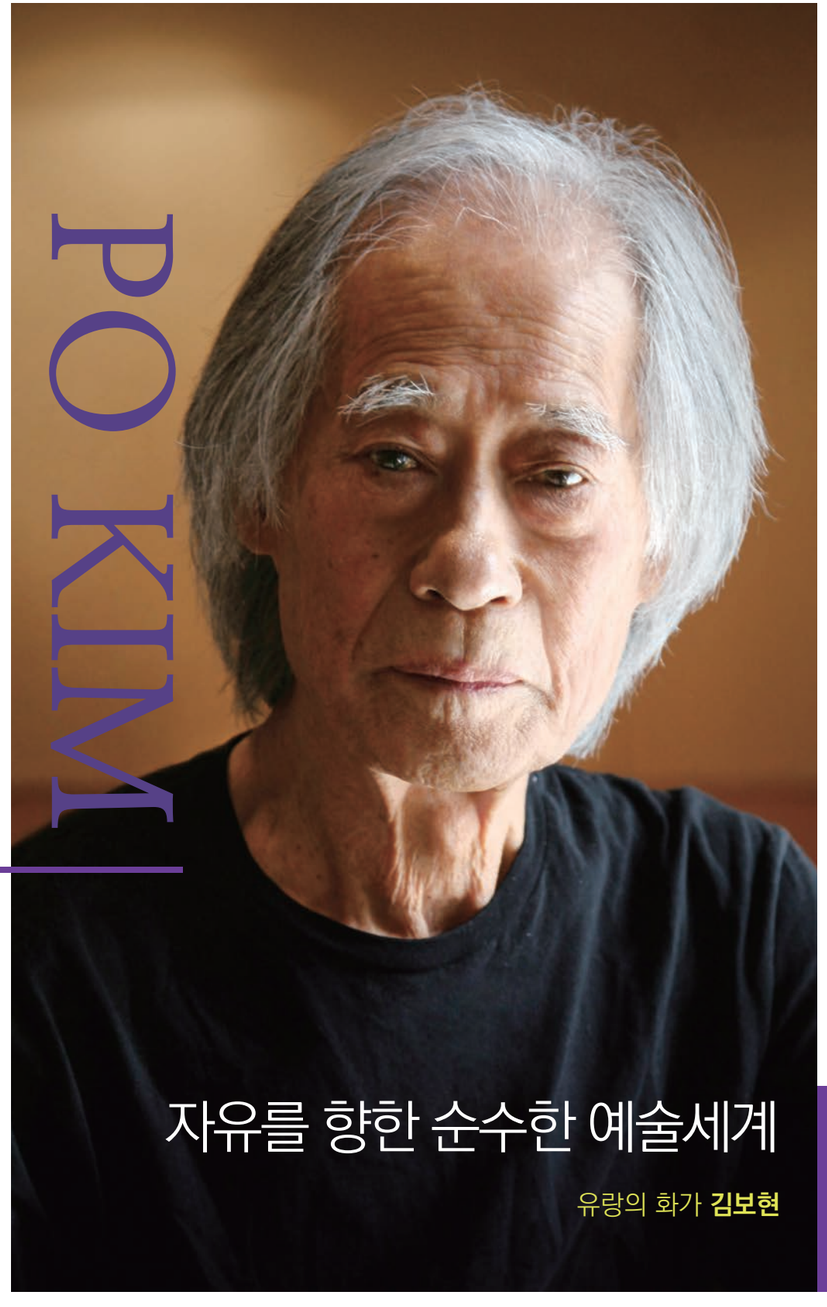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봄'을 앗아 갔다. 매년 이맘때는 창문을 활짝 열고 봄바람을 타고 오는 꽃향기를 맡았지만, 올해 봄에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문이란 문은 꼭 닫고 살아가고 있다. 조선대학교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은 봄을 맞아 소장품 기획전 '꽃봄오리' 展을 3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고(故) 김보현 작가 소장품 중 꽃을 소재로 한 4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기획전이다. 미술관은 전시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전시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1. 소품연작(KIMPO-W115), 38x38cm, 목판에 아크릴, 1994
2. 소품연작(KIMPO-W117), 38x38cm, 목판에 아크릴, 1994
3. 소품연작(KIMPO-W130), 38x38cm, 목판에 아크릴, 1994
4. 소품연작(KIMPO-W23), 38x38cm, 목판에 아크릴, 1994

물기 가득 머금은 붓질, 싱그러운 색감

꽃을 향한 이상 세계 "봄이 빨리 오기를"

김보현 작가(PO KIM)는 생전에 자신의 작품 속 꽃의 의미를 "나의 인생이 별로 순조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통 같은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환상적인 것을 그리고 싶었어요. 아름답고 고통이 없는 것……. 그러니까 환상세계를 그림으로써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라고 설명했다.
김보현 작가의 작품 속 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세상, 고통이 사라진 이상세계를 의미한다.
김보현 미술관 김승환 관장은 "새봄을 맞아 故김보현 작가가 '꽃'을 통해 추구했던 작품 세계가 물질문명에서 표류하는 현대인의 고독을 보듬고, 생명 순환의 의미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사유나 잠재된 기억, 인간 순수의 본성에 대해 깨우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미국에서 별세한 김보현 작가는 자연주의 작품과 추상회화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91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미술교육을 받았다. 김보현 작가는 1946년 조선대 교수로 부임해 지역 미술의 기틀을 닦았다. 그러나 좌익과 우익 사이를 오가며 핍박을 받았던 그는 결국 한국 미술계와 단절한 채 1957년 일리노이 대학 교환교수로 미국에 건너갔다.
고 김보현 작가는 한동안 고국과 연을 끊었으나, 평생 고국을 그리워한 이방인 화가였다.
1990년 무렵 서울에서 잇따라 개인전을 열면서 한국화단에 자연주의 작품과 추상회화로 다시 이름을 알렸다. 작품세계가 곧 한국 근대현대미술사와 동의어라고 평가받는 김보현 작가는 지난 2000년 그가 평생 그려온 작품 340점을 조선대에 기증했다. 2002년엔 그의 아내 실비아 올드 여사 역시 자신의 작품 78점을 조선대에 기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대학교는 지난 2011년 조선대학교 본관 1층 중앙에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을 마련했다. 전시실과 수장고를 포함해 총 362.8㎡ 규모로 건립된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에는 김 작가와 올드 여사가 기증한 작품 약 400여 점을 영구보관 중이며, 다양한 기획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조선대 구성원은 물론 광주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 갤러리

보성강, 구석기인들의 낙원

조선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1

2

3

4

1. 몸돌과 격지
2. 신방묘지
3. 송국리형단지
4. 왼쪽부터 흑유병, 백자철화풀꽃무늬병, 백자청화모란무늬호

호남에서 처음으로 구석기인의 자취가 확인된 곳이 바로 보성강 유역이다. 보성강변은 구석기 유적으로는 영호남 최초의 국가사적인 순천 월평유적과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장흥 신북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대 박물관의 보성강 유역 구석기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는 1995년 봄에 송광천변의 구룡리 영봉에서 홈날석기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그해에만 40개의 구석기 유적을 발견했고, 그 뒤 모두 75개를 찾았다. 이는 지금까지 보성강 유역에서 발견된 유적의 90% 이상에 이른다. '보성강, 구석기인들의 낙원' 전시는 지난 20여 년간 조선대학교 박물관 연구원들이 조사해 발굴한 유물들을 통해 호남 역사의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됐다.

CU Column

언론인 칼럼

김경태 남도일보 부국장

봄꽃은 화려한데 캠퍼스의 봄날은 언제 오나 코로나19 OUT!

순백의 목련과 화사한 벚꽃이 자태를 뽐내더니 뒤질세라 어느 새 분홍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한다. 녹색 옷으로 갈아입은 수목과 밝은 햇살 아래 영롱한 꽃나무들이 저마다 봄이 왔다고 외쳐댄다. 이맘때면 항상 활기가 넘쳤던 대학 교정은 올해는 적막한 침묵의 공간이 돼 버렸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와서 대학이 개강은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캠퍼스 풍경은 방학기간과 다를 바 없다. 학생도, 교수도, 꽃구경 온 시민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학생·시민의 안전을 위해 개강 이후에도 강의실을 폐쇄하고 비대면(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가상공간에만 존재할 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도 장기화하고 있다. 조선대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4월 17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캠퍼스가 텅 비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마냥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업에 원격 프로그램 사용을 모색하는 대학의 움직임이 '미래 대학'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오래된 관습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큰 사건이 새로운 미래 대학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조선대의 적극적인 대처능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대는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코로나19 대응본부'를 설치해 개강 연기 등 학사일정을 발 빠르게 조정했다. 또 대학 정보전산원과 e-learning(이러닝)팀을 중심으로 올 1학기 4000여 개에 달하는 교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캠퍼스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조선대학교는 2월 초순부터 방학을 마친 중국 유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그린빌리지 기숙사에 유학생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중앙도서관과 각 단과대학 등 캠퍼스 곳곳을 철저하게 방역했다.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국제관 보건진료소 1층 주차장에 '코로나19 의심환자 대기실'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직 캠퍼스는 청정지역이다.

이처럼 일사불란한 행정은 신임 민영돈 총장의 리더십과 대학 구성원들의 협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작년 연말 민 총장이 제17대 총장으로 취임한 후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사실 조선대는 지난 수년간 교육부 평가에서 저조한 실적과 전임 총장 해임문제를 둘러싼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호남 최대 사학'이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

민 총장도 이를 인식해 취임 일성으로 "그동안 대학이 겪은 어려움과 갈등을 깨끗이 털어내고 미래를 개척하는 '100년 대학'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선언했다.

민영돈 총장은 재임기간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산학혁신 ▲학생중심의 행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을 이뤄 세계로 비상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대는 일제로부터 해방 직후인 1946년 7만2천여 호남 시·도민의 대학 건립 열망 속에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그만큼 호남 시·도민의 애정이 깃들어 있다.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 속에 떨게 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다. 새 학기가 되었지만 신입생들은 아직 친구들 얼굴도, 교수님 얼굴도 모른 채 지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조선대학교 캠퍼스에 진정한 봄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학생 칼럼

허수현 조대신문 기자

무기력하다는 것은

강력한 무기력의 늪 속, 자신의 반짝임을 잊지 않는 법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모든 일에 이런 의문을 가진다면 무기력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무기력증의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세세한 일에 열정을 쏟아서 해야 할 일에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 만약 점심 메뉴를 아주 신중하게 골랐거나, 별거 아닌 것에 감정을 쏟았다 그 하루는 정말 피곤할 것이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모든 상황에 지친 것이다. 두 번째는 온 힘을 다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다. 실패를 마주하면 허탈함과 두려움이 쏟았던 열정의 배로 밀려온다. 그런 감정들이 몸에 배면 방어적인 태도가 만들어진다. 방어적인 태도는 그 이상의 도전은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세 번째는 자기 생각에 갇힐 때이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에 갇혀 답을 찾아내고 있다. 찾은 답에 의심을 품고 다른 답을 찾으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생각의 늪에 빠져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진다.

무기력의 힘은 강력해서 계속 커지다 보면 우리를 잠식해 버릴지도 모른다. 무기력함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

우선 앉아 있는 시간을 늘려보자. 책상에 앉으면 언제 꽂아 놨는지 기억 안 나는 책들이 눈에 보이고 한동안 잡지 않았던 펜도 보일 것이다. 전자기기보다는 종이와 펜을 써보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해 볼까' 하는 일들을 적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밈없는 문장이다. 뭔가를 쓸 때 강박적으로 예쁘게 쓰거나 좋은 문장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다. 최대한 머릿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써 보도록 하자. 낙서도 곁들여 가며 글이라기보단 간단한 메모처럼, 꼭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생각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기분을 좋게 만든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문장을 되뇌는 자신의 목소리에 괜히 마음에 생기가 돈다. 하루하루 그런 시간을 늘려가며 졸업사진도 꺼내보고 책 머리말도 훑어보고 창문도 열어보는 것이다.

항상 열심히 하자고 부추기고 싶지는 않다. 다만 도전하는 나의 모습, 좋아하는 일을 하며 반짝였던 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표를 향한 오르막길의 산들바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찾아온 무기력증에 잠식되지 말자.

gjtngus57@naver.com

'백년대계의 밑거름' **발전기금 소식**

조선대학교 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되는 발전기금을 기탁하신 분들의 소식입니다.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기탁자 감사패 전달

지난해 9월부터 12월 고액 기탁자 대상

조선대학교는 2월 3일 오전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기탁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 발전기금을 기부한 고액기탁자들에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기탁자는 김광성 ㈜탑외국어사 대표이사, 문영래 문영래정형외과병원장, 박진열 ㈜동아-하이택 대표이사, 박철성 ㈜아텍 대표이사, 박혜숙 조선대병원 청라임상회 회장, 안동규 조선대학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유호진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이기엽 피앤엘파트너스㈜ 대표이사, 장항준 영화감독, 장택규씨, 조형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하충식 한마음국제복지재단 이사장, 홍진후 ㈜큐시스 대표이사이다.

김평중 지산볼링장 대표

조선대 발전기금 누적 기탁금 5000만 원 돌파

조선대학교는 3월 18일 오후 2시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김평중 ㈜한국유리소프트 지산볼링장 대표의 발전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김평중 대표는 체육대학에 2012년부터 9회에 걸쳐 5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여, 이날 누적 기탁금은 5000만 원을 돌파했다. 김평중 대표가 기탁한 발전기금은 저소득 가정, 체육특기자, 체육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 국제대회 출전 입상자 등의 장학금으로 지원되어 왔다.

KT텔레캅㈜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KT텔레캅㈜이 지난 2월 6일 대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오후 3시 조선대학교 총장실에서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과 KT텔레캅㈜ 김영민 호남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탁식이 개최됐다.

김미숙 명예교수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김미숙 미술체육대학 공연무용과 명예교수는 2월 4일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김미숙 교수는 "조선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조선대학교 신용협동조합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이청호 이사장

조선대학교 신용협동조합은 조선대학교 학교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조선대학교 신협은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미래에셋 장학기금 1200만 원 기탁

MIRAE ASSET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진성SMR

의과대학MRC발전기금 2억 800만 원 기탁

JINSUNG

동원육영재단

4차산업융합연구소 발전기금 1억 4726만 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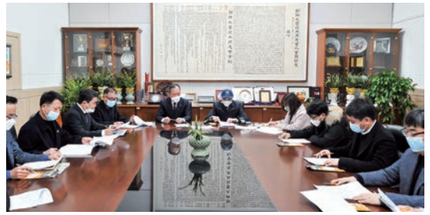
Dongwon
동원육영재단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복)미래에셋박현주재단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박현주재단	12,000,000원	62,400,000원
(사)대한민국배구협회	(사)대한민국배구협회	3,000,000원	3,000,000원
(주)덴티움	(주)덴티움	6,000,000원	12,000,000원
김기탁	미술체육대학	100,000원	100,000원
김미숙	미술체육대학	10,000,000원	33,140,400원
김민철	미술체육대학	3,200,000원	3,200,000원
김영미	연구처	1,800,000원	9,164,400원
김옥자	연구처	2,000,000원	8,113,600원
김정숙	글로벌인문대학	1,800,000원	3,600,000원
김춘욱	취업학생처	1,750,000원	9,521,200원
김현재	미술체육대학	200,000원	200,000원
나성주	동문	1,000,000원	1,000,000원
나수진		100,000원	100,000원
동원육영재단(김재철)	동원육영재단	147,262,090원	1,537,262,090원
민지선	동문	300,000원	300,000원
박범열	(주)한국알앤드디	5,000,000원	5,000,000원
박범옥	중앙도서관	1,000,000원	9,042,400원
박영신	사범대학	600,000원	3,041,600원
박철완	NH농협은행	2,000,000원	5,500,000원
박행자	단과대학	2,000,000원	7,939,600원
삼성증권 광주WM지점	삼성증권	1,200,000원	1,200,000원
서주연		400,000원	400,000원
서효민	미술체육대학	2,000,000원	2,000,000원
소금영	의학전문대학원	1,000,000원	32,638,400원
오형근	동문	60,000,000원	60,000,000원
이강희	대외협력처	3,630,000원	10,024,800원
이상봉		10,000원	20,000원
이송이	대외협력처	240,000원	600,000원
장삼석	총무관리처	3,000,000원	7,977,200원
정루미	동문	200,000원	200,000원
정유신	IT융합대학	1,080,000원	5,964,800원
조광희	사범대학	1,000,000원	16,110,800원
조규선	취업학생처	2,000,000원	12,030,000원
조삼래	대외협력처	3,600,000원	14,998,000원
조선대신협	조선대학교신용협동조합	10,000,000원	40,000,000원
조선대학교어린이집	조선대학교어린이집	1,226,000원	1,226,000원
조선대학군단 58기 동기회	동문	5,000,000원	5,000,000원
주식회사 신풍	주식회사 신풍	1,983,400원	1,983,400원
최나희	조선대학교병원	300,000원	400,000원
최　인	조선대학교병원	3,500,000원	16,100,000원
케이티텔레캅(주)	케이티텔레캅(주)	10,000,000원	10,000,000원
하미순	교육대학원 물리교육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겸직)	1,000,000원	9,736,000원
김평중	한국유러소프트(지산볼링장)	10,000,000원	50,000,000원
합계		327,481,490원	

조선대 간호학과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생 79명이 지난 1월 22일에 개최된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조선대 간호학과는 지난해(2019년) 개설 5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2017년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을 획득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간호 전문직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쑨시엔위 중국 주광주 총영사 조선대학교 방문 중국인 유학생 격려



쑨시엔위(손현우) 중국 주(駐)광주 총영사가 지난 2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조선대학교를 찾아 관리 현황을 살피고 유학생들을 격려했다.
쑨 총영사는 이날 오전 11시 총장실에서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을 포함한 처장단, 실무자들과 회의를 갖고 중국인 유학생 관리 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2주간의 격리생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중국인 유학생 이암기 학생과 김준연 총학생회장도 함께했다.
쑨 총영사는 "조선대학교가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영돈 총장은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중국 정부가 이번 위기를 꼭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조선대학교, 교육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 사업 선정

지병근 교수

조선대학교가 지난 2월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사업에 선정됐다.
공영형사립대는 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진 과반수를 공익형 이사로 꾸리고,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 20~2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번 용역사업에 선정된 사립대학에 공영형사립대의 핵심요소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연구사업에는 연구책임자인 지병근 교수(정치외교학과)를 비롯하여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경영학, 법학 분야 7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6월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2019학년도 전기 졸업생 4046명 배출

조선대학교는 2019학년도 전기 △학사 3538명 △석사 453명 △박사 55명의 졸업생 총 4046명을 배출했다.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졸업식이 취소됨에 따라 민영돈 총장과 단과대학 학장들의 졸업 축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다.

"조선대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된 2020학년도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대신하여 입학 축하 및 '자아의 발견과 진로탐색 1' 교과목 소개 동영상을 제작했다.
'자아의 발견과 진로탐색 1'(인문)은 조선대학교 학생이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조선대학교의 역사, 설립정신뿐만 아니라 철학, 인문, 사회, 자연 등의 핵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상은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와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개강일인 3월 16일에 조선대학교 사이버캠퍼스에 게시됐다.

조선대 대학원생, 세계 권위 미생물학 저널서 '스포트라이트 논문' 선정

득규민

강보경

이초아

박희정

박윤미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대학원생들(치의생명공학과·지도교수 방일수)이 연구한 결과가 지난 1월 2일 발간된 미생물학 저널 'Journal of Bacteriology'에서 주목해야 할 논문(Spotlight Article)으로 선정됐다. 국내 연구진으로선 첫 사례다.
Journal of Bacteriology는 미생물학 분야에서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세계적인 권위의 저널이다. 이 저널은 2015년부터 발간되는 논문들 중 Spotlight Article을 별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득규민(베트남), 강보경 학생이 공동 제1저자로, 이초아, 박희정, 박윤미 학생이 공동저자로 기여한 이 논문은 "살모넬라 최종 산화효소 cytochrome bd 의 조합과 기능에 필수적인 작은 단백질 CydX: 표현형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조선대학교 대학원생들은 살모넬라를 모델 균주로 이용하여, 이 산화효소 복합체의 조합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특성을 연구, 이 효소의 조합과정이 동물 세포내에서 세균의 증식에 필수적이라는 사실 등을 규명했다.

조선대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4년 연속 재학생 응시자 전원 합격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작업치료학과가 '4년 연속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재학생 응시자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12월 7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한 제47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조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4학년 재학생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이로써 조선대 작업치료학과는 2016년 국가시험부터 4년 연속 재학생 응시생 전원 합격을 이끌어냈다. 또 조선대 작업치료학과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와 보건교육사(3급) 국가자격시험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 8명도 배출했다. 이는 전국 작업치료학과 대학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로 알려졌다.

조선대학교 김진숙 교수, 제5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김진숙 교수

조선대학교 김진숙 행정복지학부 교수가 최근 국무총리 소속 제5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족한 국무총리 직속의 심의·의결 기구다.
김진숙 교수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선대학교 사회복지센터장, 광주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조선대 링크플러스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광주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선대-중국 연변대학 "코로나19 사태 함께 극복하자"

延边大学 YANBIAN UNIVERSITY

지난 3월 5일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은 연변대학 김웅 총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공감하고 격려하는 서신을 받았다. 조선대학교와 중국 연변대학은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연변대학 의학부 및 치과병원이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이후로 인재 양성 교류 및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다.
김웅 총장은 "감염병 확산 예방 통제 사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양 대학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그 누구보다 돈독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은 "총장님께서 보내주신 진심어린 서신으로 양 대학의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아 무척 기쁘다"고 화답했다.

조선대학교 박영신 교수,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박영신 교수

조선대학교가 최근 삼성꿈장학재단의 2020년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박영신 교수(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가 총괄 운영하는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은 대학이 지역적-사회경제적으로 교육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 및 ICT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인증·우수학과 시상식

조선대학교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1시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인증 및 우수학과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 인증 및 우수학과 평가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학과를 평가·인증하고, 우수학과 사례를 공유하여 대학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을 유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증 평가요소는 △우리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방향성과의 정합성 △교과목의 신규·폐지에 대한 수요조사, 교육만족도 조사 및 핵심역량 진단 결과 반영 여부 △전공능력설정의 체계성 △전공교육과정 이수 체계성 △전공교육과정 환류 및 개선 실적 등이다.
평가요소 총합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교육과정 편성 인증학과'로 선정했으며, 96점 이상인 4개 학과를 우수학과로 선정했다.
교육과정 우수학과로 선정된 학과는 △스포츠산업학과(학과장 백승헌) △상담심리학과(학과장 오지현) △언어치료학과(학과장 표화영) △군사학과(학과장 김법헌)이다.

조선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격려 간식 및 메시지 전달

조선대학교는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그린빌리지 기숙사에 보호 및 관리 중인 중국 입국 유학생에게 간식으로 햄버거와 치킨 세트를 전달했다.
조선대학교는 관리 중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관리 해제된 중국 입국 유학생들에게도 격려의 마음으로 간식을 전달했다.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은 간식과 함께 전달한 서신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면서 "곧 지나갈 것이니 함께 힘내자"라고 응원했다.
신문방송학과 3학년 공립군(중국 천진) 학생은 "그린빌리지 기숙사가 깨끗하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서 잘 지내고 있다"면서 "대학에서 보내준 간식과 응원 메시지에 감동했다. 관리 기간을 무사히 잘 보내고 나오겠다"고 화답했다.

조선대학교, 전라·제주권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3년 연속 선정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2020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의 전라·제주권 수행기관(연구책임자 김현우 교수)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은 다양한 체육·예술 교육기부 체험자원 확대 및 발굴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조선대학교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은 지난 2년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조선대학교의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에는 전 농구선수 우지원씨가 광주 고실초등학교와 수완중학교를 방문해 농구 강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장항준 영화감독이 광주 설월여고를, 7월에는 뉴욕대학교 전임교원 패트리카(Patricia Eun Ji Kim)씨가 전남외국어고등학교를 찾아 고교생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다.

조선대학교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단은 2019년 사업평가 결과 우수 거점대학으로 평가되어 올해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내 대학생 동아리와 명사들이 광주, 전남, 전북의 특수학교, 소외지역학교, 교육복지학교 등을 방문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금호주택, 조선대학교 몽골 유학생에게 장학금 500만 원 전달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금호주택이 조선대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유학생 10명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조선대학교는 3월 30일 오후 2시 본부 소회의실에서 ㈜금호주택 김명군 대표이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성도 사무처장과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금호주택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조선대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대학원생 5명과 학부생 5명에게 각 장학금 50만 원씩을 전달했다.

김명군 ㈜금호주택 대표이사는 몽골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2019년 6월 '주한몽골문화원'을 설립했고, 현재 주한몽골문화원장을 맡고 있다. 주한 몽골인들의 권익 보호와 몽골문화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5년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건립기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한 데 이어 지역 대학 발전기금을 후원했다. 김 대표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83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조선대학교·광주신용보증재단, 선취업·후학습 진흥 협력 MOU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지역 평생교육체제 선도 모델 구축과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은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 조선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선취업 연계·후학습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협력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한 조선대학교 가족회사 선취업 연계 ▲선취업자에 대한 재직자 교육 훈련 지원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정보교류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상호 협의사항 운영 등이다.

윤영덕 국회의원 후보, 조선대학교 민주공원 방문

조선대학교 출신 윤영덕 민주당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3월 31일 모교 내 민주공원을 방문하여, 김준연 총학생회장 등과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투신한 조선대학교 민주 열사들을 추모했다.

조선대학교 "한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조선대학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성금 모금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4월 2일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과 각 실·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봉급의 일정액을 대학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기금으로 내 놓기로 결의했다. 민영돈 총장은 한달 급여의 60%를, 그 외 실·처장들은 한달 급여의 30%를 석달간 나누어 대학에 기탁한다.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금 모금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수평의회는 지난 1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성금 모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 성금 모금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원 성금모금 운동을 전개했으며, 혈액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릴레이 헌혈 봉사'도 진행했다.

제23대 조선대학교병원장 정종훈 의학박사 취임

“환자 중심의 선진의료 위해 우수 의료진 확보 최우선” 강조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13일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22대 배학연 병원장 이임식과 23대 신임 정종훈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정종훈 병원장은 조선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조선대병원에서 홍보실장, 교육부장, 진료부장, 기획실장, 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다수의 논문 집필과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신장질환 베스트 닥터 선정, KBS 의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신장내과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 받았다.

정종훈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환자 중심의 선진 의료를 최우선 목표로 실천할 것"이라며 "우수 의료진 확보, 최신 의료장비 확충, 진료의뢰·회송체계 개선,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 병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 피부과 김민성 교수, ‘모즈미세도식수술’ 1,100례 달성

조선대병원 피부과 김민성 교수가 피부암 절제술인 ‘모즈미세도식수술’ (Mohs Micrographic Surgery) 1,100례를 달성했다.

피부과 김민성 교수가 시행하고 있는 ‘모즈미세도식수술’은 피부암을 조금씩 제거하여 제거된 조직절편에서 암세포가 있는지 현미경으로 일일이 확인한 후, 암의 잔존부위에 따라 지도를 그리듯 종양세포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반복하는 특수한 수술기법이다.

특히, 암조직을 떼어내고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해 완전 제거 여부를 확인한 뒤, 암세포가 남아 있을 경우 암 부위만 다시 절제하기 때문에 일상 복귀가 빠르고 무엇보다 재발률이 3% 미만에 불과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로 알려져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조선대병원 방문

음압격리 시설 및 코로나19 대응 점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지난 1월 3일 조선대병원에 방문해 음압격리 시설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이 시장은 윤나라 감염관리실장(감염내과)으로부터 의료진의 의심환자 선별과 대응책 및 면회 제한 조치와 주요 출입구 통제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22번 확진자 조선대병원에서 완치

지난 1월 17일 조선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음압격리실)’에 입원했던 코로나19 22번 확진자가 완치·퇴원했다.

22번 확진자 A씨(46세)는 16번 확진자의 오빠로 설 연휴에 여동생 가족과 식사 후 접촉 사실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고 6일 새벽 2시 30분경에 곧바로 조선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에 입원했다. 조선대병원은 A씨가 치료를 받은 후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1월 17일 퇴원을 최종 결정했다.

A씨는 의료진에게 “저의 치료와 편의를 위해 24시간 고생한 의료진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완치 소감을 밝혔다.

조선대병원 간호사들, 코로나19 최전선 대구로 향하다

김성연·정정기 간호사 대구 의료지원

조선대병원 혈관촬영실 정정기 간호사와 외래검사실 김성연 간호사가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해 지난 3월 대구로 향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봉사를 자원했다.

이들은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들 2명을 지난 3월 9일부터 2주간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확진환자 치료를 담당케 했고, 이후 2주간 자가격리 후 조선대병원에 복귀했다.

정종훈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은 2005년 인도네시아 지진, 2015년 네팔 지진 및 2014년 세월호 사태 발생 당시에도 신속히 의료지원단을 꾸려 피해지역 환자를 돌봤다”며 “조선대병원 간호사들의 사명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조선대병원 의료진 향한 끊임없는 후원

대구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광역시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환자를 적극 수용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고, 조선대병원도 이에 동참했다.

지난 3월부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대구·경북 중증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조선대병원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광주시민과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및 닥터찰스에 이어 이번 주에는 학운동 성당, 사랑의씨튼수녀회, 털보의 커피놀이터, 카페Star, 광주경실련, 서울병원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드림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8곳에서 조선대병원 의료진에 후원품을 보냈다.

노경영 조선대병원 총무부장은 “광주지역 여러 단체와 시민의 후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조선대병원, 코로나19 확산에 감염 예방 만전

병원 입구 4단계 통과 프로세스 진행, 면회 제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중환자실을 포함한 모든 병동의 면회를 전면 제한하고, 환자 및 보호자 안전을 위해 모든 교직원이 주 출입구에 마련된 선별문진소 근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조선대병원은 주 출입구(1관 정문, 2관 정문)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환자와 내원객에 대한 원내 출입 통제 강화를 위해 병원 외부 공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별도의 '선별문진소'에서 발열 및 해외방문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방문객은 선별문진소에서 ▲문진표 작성 ▲해외방문 이력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확인 ▲발열 검사 ▲PASS 스티커 부착 절차를 거쳐야 원내 출입이 허용된다.

정종훈 병원장은 "병원 출입에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모든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 출신 조선대 학생 "5·18 광주정신 건재함 느꼈다"

대구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한 조선대병원에 감사편지·간식 전달

송성한 학생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학중인 대구 출신 송성한(4학년·29)씨가 광주와 대구 간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대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한 조선대병원에 감사의 편지와 간식을 보냈다.

송씨는 고등학생 시절 매년 5월 18일이면 학교의 체험학습으로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사들을 추모했다. 이때 국내 최초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에 대해 알게 됐고, 2012년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했다.

송씨는 조선대병원에 입원했던 대구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난 3월 26일 무사히 퇴원한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했다. 송씨는 광주와 인연이 깊은 대구주민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고민 끝에 송씨는 대구 환자가 퇴원했다는 다음날인 3월 27일,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직원과 의료진에 편지와 간식을 직접 전달했다.

송씨는 대구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환자를 치료한 조선대병원 의료진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광주정신'이 건재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송씨는 편지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광주정신을 존경해왔다"면서 "그리고 요즘, 광주정신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씨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제 고향 대구의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기꺼이 치료해주고, 직접 대구로 의료봉사를 떠난 조선대병원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송씨는 "대학생 신분이라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준비했다"면서 "나눠주신 마음을 언젠가 꼭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 치과병원, 2년 연속 '지역선도의료기관 평가 1위'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지역선도의료기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로 최근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지역의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하여 특화된 의료관광모델을 개발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 사업을 공모했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치과의료·교육 관광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원했으며, 주 사업내용은 치과치료/산업연계 상품 개발,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 온라인 교육원을 신설하여 국내외 치과의사 대상의 온라인 평생교육, 전공의 교육까지 포괄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미경 병원장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의 의료기술과 해외의료진 교육 네트워크는 지역을 넘어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오프라인의 교육환경을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해외의료진 교육을 더욱 체계화함으로써 의료의 나눔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해외환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1개 대학치과병원 중 유일하게 원내에 치과의료관광지원센터(센터장 손미경)를 구축하고 G10 IDEA(G10 국제치과교육아카데미)를 상표 특화하여 해외의료진 교육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의료봉사단, 복지시설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전달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의료봉사단은 최근 전남지역 장애인 요양원과 복지관에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전달하는 나눔봉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12일 진행한 이번 나눔봉사에는 조형훈 단장과 단원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봉사 동아리인 가톨릭 학생회 학생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목포 장애인요양원, 목포 명도복지관, 나주 빛고을정신요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방물품(손소독제)을 전달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료봉사단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이 더 빛나는 것 같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기금을 보내주신 분께는

- 500만 원 이상 출연하신 분들의 성함을 우리 대학교 명예의 전당(본관 중앙 현관)에 새겨 그 뜻을 기립니다.
- 우리 대학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소개합니다.
- 우리 대학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기금을 출연하신 분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조선대학교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액 100%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정기부금의 세액 공제는 기부금을 납부한 해로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부(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2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5%,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득세법 제34조)

개인기부(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 개인사업자가 기부액을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법인세법 제24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약정서를 송부하여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약정하신 금액은 일시 납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 현물, 주식, 부동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 납부 방법

- 전화, 우편, 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전화/주소/담당자 이메일)
- 조선대학교 홍보팀에 방문하여 직접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062-230-6234 / ghgwon@chosun.ac.kr)
- 아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신 경우, 꼭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은행 004-127-007929 (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_ www.chosun.ac.kr